

만해스님 詩 음반에 답는다

“스님의 종교관·사상 구어사용 생생히 전달” 성우 이정구씨 녹음 ‘낭송시전집’ 연말 출시

만해스님의 시어들을 귀로 읽게 됐다. 만해스님의 유작 88편의 시전부를 10개의 테이프에 담은 ‘만해 한운은 낭송시 전집’이 제작, 그 1집이 출시됐다. 이 앨범은 본격적으로 선보일 ‘만해 한운은 낭송시 전집’은 수장음반(대표 최길순)이 총기획, 제작하고 <다이하드 시리즈>의 브루스윌리스 목소리로 유명한 정상급 성우 이정구씨의 음성으로 녹음됐다. 또 낭송시 전집은 만해사상연구회

전보상회장(신구전문대 교수)이 고종했다. 이번 시낭송 테이프는 현대어가 아닌 구어(만해스님 표기에 따라)를 그대로 살려 제작된다는 큰 특징. 당시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함

으로써 만해스님이 표현하고자 했던 사상을 운치있게 살려 요즘 사람들이 하여금 고스란히 가슴깊이 되새기게 한다. 이번 테이프는 또 음악 위주의 시낭송 테이프로 자칫 오인되기도 하는 기존의 시낭송 테



▷만해스님 시낭송 테이프 1집.

BBS 드라마 ‘불교설화’ 테이프 제작 시판

재미있는 불교설화를 테이프로 듣는다. 불교방송이 입체방송 드라마 ‘불교설화’ (매주 일요일 오후4시5분~50분)를 8개의 오디오 테이프에 담아 시판한다. 유명사화와 성지에 깃든 재미있고 교훈적인 이야기를 현장감 있는 드라마로 엮었다. 수록된 설화는 △산방산의 꽃비(거제 보현암과 삼신석굴) △삼화령 애기부처님(경주 남산) △검단리의 보은열(고창 선운사) △홍창 아씨와 성대아씨(세운 절(곡성 관음사) △육면이의 극락왕생(진주 미타사) △소라야에게 갇힌 나비(삼각산 삼성암) △호암자스님과 선암사(승주 선암사) △도래수의 첫사랑(강화 정동사).



‘불교음악 작곡집’ 출판 김희경씨 27일 기념콘서트

불교음악작곡가 김희경씨의 ‘불교음악 작곡집’이 출판됐다. 사찰합창단 지휘, 신곡 발표 등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젊은 작곡가 김희경씨는 이번 음반에 찬불가곡, 찬불가요, 찬불곡악가요, 찬불동요, 찬불가 등 각기 다른 색깔의 음악들을 다양하게 수록했다. 태광산업의 지원으로 제작된 김씨의 ‘불교음악 작곡집’은 보다 현대적이고 생활화 될 수 있는 찬불가의 영역에 대한 자리매김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음반의 출판은 기념되는 오는 27일 오후7시 동송아트홀(745-4548)에서 열린다. 음반 출판기념식에 이은 콘서트에서는 수록된 음악들이 공연될 예정이다. 이번 음반 기념공연은 구로 관음포교원(주지 일명)이 마련한다.



▷김희경씨

해인사 성보박물관 연말착공

60억 투입 연건평 2천평 규모...97년 완공

해인사와 경남가야문화원의 불교문화재를 한 자리에 볼 수 있게 된다. 해인사(주지 지관)와 합천군은 지난 18일 해인사 성보박물관 공사를 올 연말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97년 완공될 해인사 성보박물관은 전국 본사 가운데 최대 규모로 지어질 계획이다. 해인사 일주문 주변 5천여평 부지

에 연건평 2천평 규모로 설립될 해인사 성보박물관은 지하 1층 지상2층으로 설계됐다. 이 박물관에는 해인사 본말사가 소장하고 있는 불교문화재와 가야시대 유물 등 모두 1만여점이 영구 보존된다. 따라서 이 지역 문화재를 시대별 종류별로 나눠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다. 국비 35억원 도·군비 15

억원 해인사 부담금 10억원 등 모두 60억원을 들여 설립될 해인사 성보박물관은 이 지역 불교사 이해를 돕기 위한 각종 부대시설도 갖추게 된다. 해인사와 합천군은 그간 산재된 지역문화유물의 합리적인 관리와 사찰문화재의 도난 방지를 위해 대규모 성보박물관 건립 계획을 세워 왔었다.

교신자인 어머니의 기대 때문인지 많은 시를 낭송하고 녹음을 해왔지만 이번처럼 여가 무거운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만해스님이 생전에 시를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깊은 뜻을 살려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만해 한운은 낭송시’ 테이프

프는 지난 20일부터 열리고 있는 책판 전시회를 위해 1집만 우선 제작돼 전시장에서 선보이고 있다. 도필선 기자

그런던 진경산수화가 발전할 때 우리나라 사람의 모습을 화폭에 옮긴 그림. 이번 전시에서는 조선 사람의 모습을 한 달마대사가 겪은 갈대가지와 타고 바다를 건너는 모습을 그린 단원 김홍도의 ‘절도도래’와 ‘남해관음’ ‘노승염불’ 등을 비롯해 경재 정선, 혜원 신윤복 등 21명의 작품 60여점이 선보이고 있다.

한국복식 2천년전 장삼등 4백여점 전시

‘한국복식 2천년전’이 지난 18일부터 국립민속박물관 중앙홀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특별전은 우리 복식문화의 전통과 참모습을 살펴, 세계속에 한국 고유의 복식문화를 알리자는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화장구 장신구 의복 신발 등 4백여점이 전시되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89년 전통공예대전에서 입상한 강계원씨의 가사, 장삼이 전시돼 눈길을 끈다.

정판수씨 부처님상등 국제 빵·과자전 출품

대한제국협회가 개최하는 제7회 서울국제 빵·과자전이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삼성동 무역전시관 대서양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정판수씨 등이 제작한 부처님상, 달마상 등이 출품된다.



▷김홍도의 ‘노승염불’.

진경시대 인물화전 29일 간송미술관서 열려

조선 후기 인물화 명품을 만날 수 있는 ‘진경시대 인물화전’이 간송미술관에서 오는 29일까지 열린다. 진경시대 인물화란 조선후기 우리나라 산수의 아름다움을

종교화합 음악무대 열린다

95 종교음악제 내달 2일 국립극장서

음악을 통한 종교간의 화합과 문화교류의 마당을 넓혀가는 95종교음악제가 내달 2일 오후7시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막을 올린다. 불교·평화·기독교방송이 공동 주최하고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후원하는 종교음악제에는 불교계의 불교방송 어머니합창단(108명), 가톨릭측의 가톨릭연합합창단(80명), 기독교측의 바흐합창단(80명)이 참가한다. 출연하는 합창단은 각 종교의 성가들을 중심으로 25분씩 공연을 한다. 또 세 종교의 출연 합창단으로 구성된 연합합창단도 ‘한 송이 흰 백합화’ ‘사공의 노래’ ‘울산아가씨’ ‘총각타령’ 등을 연주할 계획이다. 김동환교수(한양대)가 지휘하는 불교방송 어머니합창단은 이번 무대에서 ‘빈손’ ‘오계의 노래’ ‘그리운 부처님아시여’ 등 8곡을 부른다. 세 종교의 방송사가 매년 순번제로 추진해온 종교음악제는 올해 불교방송(담당·구경모 PD)에 의해 기획됐다.

전통한지 예술전 23~27일 부산BBS 주최

불교부산방송(사장 류진수)은 10월23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국제문화센터 전시실에서 ‘95 전통한지 예술전’을 개최한다. 삼국시대부터 우리 조상들이 사용해온 전통의상 약 70여점을 한지(다나무 종이)로 재현하는 이번 행사에는 특히 조계종 전통정성 성철스님이 생전에

▷기사서체 ‘불심사설’ 쉽다.

문 화 제 신

내년 ‘이달의 문화인물’ 도선스님등 12명 선정



▷경주 남산 장창골(長倉谷)에서 발견된 돌미륵상 존물 중 형식보살상.

문체부는 지난 17일 내년 ‘이달의 문화인물’을 선정 발표했다. 문화의 해를 여는 1월의 문화인물에는 ‘구운몽’의 작가 김만중이 선정됐다. 2월:최치원(신라·학자) 3월:유순지(조선·과학자) 4월:서재필(독립운동가) 5월:김명국(조선·화가) 6월:유한일(근대·유학양행 창립) 7월:도선스님(신라승려) 8월:심훈(소설가) 9월:왕산악(고구려·거문고명인) 10월:정인승(국어학자) 11월:전형필(문화재 수집가) 12월:이재미(조선·한의학자).

경주남산 출토 유물 ‘한눈에’ 금동불상등 2백50여점 내달 19일까지 전시

신라불교의 성지 경주 남산에서 출토된 유물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경주 남산’ 특별 전시회가 국립경주박물관 안 입지관에서 지난 17일 열려 11월19일까지 계속된다. 이번 특별전의 전시물은 1백22곳에 이르는 절터에서 출토된 범종, 금동불, 명문기와 등 유물 1백20점을 비롯해 석불 10여점, 배향아리 15점, 신라토기 등 고분출토유물 35점 등 모두 2백50여점이다. 또 지난해 발견된 남산신성비 제9비, 천은사터에서 나온 고려시대의 범종과 청자류, 창림사터에서 발견된 법화경석 등이 일반에 처음 선보여 특이점을 빛낸다. 함께 전시되는 남산 복원도형(1/1300 축소)은 영상안내시스템으로 마에어래상, 관세음보살상, 아미타존불, 마애좌불 등 수많은 불교유적이 골짜기마다 즐비해 있음을 보여준다. 고수철도가 경주를 통과할 경우 노선이 건교부가 설계한 도심노선이든, 문체부가 요구한 외곽노선이든 모두 남산 바로 옆을 지난다는 우려에 대해 “이번 특별전은 경주노선 재검토의 목소리를 웅변해 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내다봤다.

하치우마 기증 문화재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해 9월 일본의 개인소장가인 하치우마 다타스(八馬 理)씨가 기증한 통일신라 금동여래좌상 등 유물 3백83점을 한자리에 모은 ‘하치우마 다타스 기증문화재 특별전’을 지난 24일부터 11월19일까지 4층 일본실에서 개최하고 있다. (02)720-2714

조용히 쉴 수 있는 곳을 찾고 계십니까?

정토원은 조용하고 아늑한 산속에 자리한 사원(寺院)입니다. 최적의 자연환경과 현대시설은 심신의 건강을 되찾게 할 것입니다.

위치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단석리 불광산 정토원
회비 1주일에 100,000원, 한달에 300,000원
교통 1. 기차: 청량리역출발→양동역 하차(정토원까지 택시로 10분) 오전 6시 50분 낮 12시(통일호) 오후 1시(무궁화호) 3시(통일호)
 2. 자가용이용: 서울→여주(1시간)→북내면소재지(7분)→주암삼거리(10분)→양동(10분)→쌍학주유소→불광산정토원(3분)
문의전화 서울 238-3285 (금강정사)

사람을 구합니다

공기맑고 조용한 산속의 사찰(절)에서 수양하시며 평생 사실 육체와 정신이 건강하신 55세에서 60세 사이의 부부나 할머니 두분을 원합니다.

사실곳: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불광산 정토원
월급여: 침식제공 500,000원
종교: 불교인이거나 없어도 됨

연락전화: 서울 02. 238-3285
 238-2500 금강정사포교원
 0338. 71-8210 정토원

불교 정보 95년도 신판 발간

(불기 2539년-1995년-가을호)

불교계의 자료집으로 제작·보급되는 불교정보는 불교계의 모든 정보와 자료를 보다 정확하고 알차게 갖추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후원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재된 내용

- 1) 불교 종단의 임원 및 주소, 전화번호, 역사 등
- 2) 사찰의 건립 및 중창 역사, 주소, 전화번호, 현존 문화재, 소속종단, 조실 및 현 주지 등
- 3) 전통사찰에 전해 오는 설화와 사찰 기록
- 4) 사찰과 포교당의 범위, 위치 및 교통편 안내
- 5) 불교계 언론 및 잡지사, 출판사, 불교용품 전문점 등
- 6) 불교계 각종 학교, 신도회 및 일반 신행회 안내
- 7) 사찰과 신행회는 각 시도별로 가나다 순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자료를 제공하여 주시면 개정판에 기재하겠습니다.
 ※ 불교정보 1권당 1만원입니다.
 ※ 책 대금을 다음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주시면 접수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 053-12-023151 서울신탁은행 15501-2537606
 외환은행 150-13-11760-5 채신취(우체국) 011965-0068025
 국민은행 832-24-0006-924 조흥은행 390-04-1649302

예금주: 이성호

도서출판 다모다
 ☎ 02-725-6000